

HEADLINE NEWS

테러방지를 위해 교통신호기에 방사능 측정센서 부착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해 교통신호기에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예산 48,000달러를 투입, 우선 시내 주요지점 4개 교통신호기에 설치하여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능이 입증되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100여개 신호기로 설치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측정된 방사능 수준은 시 교통통제 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일정수준 이상이면 교통신호기에 부착된 교통상황 모니터링 카메라가 작동, 주변상황을 녹화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이 시도는 기존 교통신호 관련 시설물을 다각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www.centredaily.com/mld/centredaily/news/nation/13070271.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대안적인 도시발전 모델로 생태도시 건설계획 추진 (상하이)
- ② 도로 쓰레기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실시 (캘리포니아주)

도시교통

- ③ 대중교통기술 발달과 서비스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객 수 증가 (미국)
- ④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종합 교통수요 관리방안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⑤ 대중교통 및 보행자 친화적인 시범 가로 프로젝트 추진 (밴쿠버)
- ⑥ 웹사이트를 통한 주차장 예약제 도입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테시)
- ⑦ 대중교통 승객 계도를 위해 유머러스한 신조어 활용 (워싱턴 D.C.)
- ⑧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도로 디자인 기법 인기 (미국)
- ⑨ 트럭 휴게소에 각종 서비스 공급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 (미국)

사회복지·문화

- ⑩ 노년층의 운동을 권장하는 10주 걷기 프로그램 실시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 ⑪ 도시 전역에 무선인터넷 이용 시스템 구축 (캘리포니아주)

행·재정

- ⑫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재정 지출 절감 (버지니아주)
- ⑬ 도로의 유지보수 재정 마련을 위해 교통유발세 부과 방안 검토 (위스콘신주 오코노콕시)

① 대안적인 도시발전 모델로 생태도시 건설계획 추진 (상하이)

중국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의 대안적인 도시발전 모델로 생태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첫 번째 생태도는 상하이 근교 동탄(Dongtan) 지구이며 2010년 상하이 엑스포 행사에 맞춰 50,0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건설된다. 동탄 지구는 2040년까지 현재 뉴욕의 3/4 규모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중국 정부는 동탄 지구의 생태도시 개발을 위해 영국 컨설팅 회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는 에너지, 물, 식량에 있어 자족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연 없는 (Zero-Emission)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observer.guardian.co.uk/business/story/0,6903,1635188,00.html)

② 도로 쓰레기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실시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부는 최근 도로 위에 쌓이는 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착수했다. 'Don't trash California'라고 명명된 이 캠페인은,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 표지판을 설치하고 라디오·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도로 위에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말 것을 홍보한다. 주교통부는 이를 위해 600만 달러에 이르는 캠페인 비용을 책정했으며, 도로미화 사업을 위해 공공 및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호소하는 캠페인도 마련 중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최근 오클랜드시가 주교통부를 상대로 만성적인 주교통부 도로 청소관리의 무책임성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5/10/03/BAGELF1F281.DTL)

③ 대중교통기술 발달과 서비스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객 수 증가 (미국)

최근 열린 미국 대중교통연합회(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모임에서 미국 주요 대도시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원인으로 올해(2005년) 여름 이후 급상승한 휘발유 가격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휘발유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인 4월부터 6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교통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이용객 수 증가 원인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새로운 시스템 도입, 대(對)승객 서비스 강화(차량 내 인터넷서비스 제공, 스마트카드 도입, 첨단 대중교통 이용 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www.ntpshow.com/shows/apta2005/pdf/Opening_Day_Release.pdf)

④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종합 교통수요 관리방안 추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종합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통수요 관리방안의 핵심은 혼잡시간대에 나홀로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나홀로 차량 혼잡세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데 케이프타운의 시행성과를 토대로 전국적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승객을 유입하기 위해 2006년 말까지 새로운 버스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역사 시설물을 개선하며, 차 없는 거리와 보행 친화적인 보도 및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제로 2006년 초에 광장 한 곳은 보행자 전용 광장으로 바뀐다.

(www.capetimes.co.za/index.php?fSectionId=271&fArticleId=2902271)

5 대중교통 및 보행자 친화적인 시범 가로 프로젝트 추진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市에서는 市의 대표적인 도로축에 대중교통 및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를 시범 조성해 일종의 전시장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를 최근 시작했다. 'Urban Transportation Showcase Program'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정부, 밴쿠버市,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범 가로에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보도를 지금보다 넓히고, 더 많은 가로수를 심으며, 각종 거리에 술 작품을 제작하고, 버스정류장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가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 가로축에서 버스운행 효율 향상을 위해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도입, 버스 이용정보 제공 강화 등 첨단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Urban Transportation Showcase Program'은 대중교통·보행자 시범 가로조성 이외에도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조성, Travel Smart 프로그램, 지역 내 화물 운송체계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35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www.tc.gc.ca/mediaroom/releases/nat/2005/05-h187e.htm)

6 웹사이트를 통한 주차장 예약제 도입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테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테(Charlotte)市 당국은, 최근 개장된 프로농구 경기와 각종 공연 행사를 수용하는 실내체육관에 주차장 예약제를 도입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해야 하는 이 주차장은 행사 시작 48시간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원하는 주차구역을 선택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행사규모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해지며, 주차구역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관계자는 주차장 예약제가 도입되면 체육관 이용자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이용자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www.news14charlotte.com/content/local_news/?AC=&ArID=104442&SecID=2)

7 대중교통 승객 계도를 위해 유머러스한 신조어 활용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는 Metro 당국은 최근 대중교통 승객 계도를 위해 유머러스한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 지하철과 버스 내 창에 부착했다. 승객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의 쾌적성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이 신조어에는 단어 자체가 시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4개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1) 갑작스런 문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신속하고 현명하게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PlanBdextrous), 2)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Sumpnspicious), 3) 필요한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할 것(Conseaterate), 4) 지하철 출입문에 서서 다른 승객이 타고 내리는 데 방해하지 말 것(Doorker) 등이다. Metro 당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설문조사를 통해 승객이 이 신조어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지와 승객의 행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www.wmata.com/about/met_news/PressReleaseDetail.cfm?ReleaseID=981)

8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도로 디자인 기법 인기 (미국)

지난 수십 년간 도로설계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넓고 쭉 뻗은 도로설계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기존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면 단순히 도로를 넓히거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새로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도로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도로설계기법(Context-Sensitive Design)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기법은 도로설계시 주변의 다양한 환경뿐 아니라 보행인구와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이용을 함께 고려한다.

(www.governing.com/articles/10speed.htm)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9 트럭 휴게소에 각종 서비스 공급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 (미국)

대형 트럭이 쉬고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냉·난방, 전기, 무선인터넷, 케이블 TV 등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대기오염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테네시에 있는 IdleAire 컨설팅 그룹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트럭 휴게소에 냉·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공회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 저감뿐 아니라 연료절약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은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주는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매연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8년부터 야간에 트럭이 공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된다.

(www.nytimes.com/2005/10/26/automobiles/autospecial/26kelley.html?ex=1287979200&en=3c9363ae07b578b1&ei=5090&partner=rssuserland&emc=rss)

10 노년층의 운동을 권장하는 10주 걷기 프로그램 실시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미국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당국은 최근 노년층 건강 증진을 위한 10주 걷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개막행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알리고 지역 내 20여개 노인 복지시설을 통해 참여한 100여 명의 참가자에게 만보기와 티셔츠를 제공하며 규칙적인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앉아서만 생활하는 현대인의 생활 특성상 걷기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하며, 특히 노년층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www.atlantaregional.com/aging/Pedometer_Program.html)

도시 전역에 무선인터넷 이용 시스템 구축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Anaheim)시는 필라델피아시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도시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망(WiFi Network)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필라델피아시와 마찬가지로 EarthLink, Inc.이며 무선통신망은 2006년 말까지 구축된다. 애너하임시는 도시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통한 첨단산업 유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www.gcn.com/vol1_no1/daily-updates/37421-1.html)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재정 지출 절감 (버지니아주)

미국 버지니아주 교통부는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회계연도까지 약 1100만 3,000달러에 이르는 여행경비를 절감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주교통부는 화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년간 화상회의 장비 구입 등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최근 1년간 798건(2,486시간) 회의를 원격으로 개최했다. 관계자는 화상회의 활성화가 여행경비 감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각종 공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virginiadot.org/info-service/news/newsrelease.asp?ID=CO-0543B)

도로의 유지보수 재정 마련을 위해 교통유발세 부과방안 검토 (위스콘신주 오코노윅市)

미국 위스콘신주 오코노윅(Oconomowoc)市 당국은 도로 유지보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유발세 부과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유발세는 토지·건물 용도와 연상면적을 고려한 교통유발계수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2006년 한해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 부족분 50만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市당국은 현재 상업용 토지·건물세가 교통량 유발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주거용 토지·건물세보다 훨씬 낮아 교통유발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 소유자 일부는 또 다른 세금부담을 야기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市당국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이 조례안을 최종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ww.jsonline.com/news/wauk/oct05/360924.asp)